

# 建築 에 의 意志

張 起 仁 三成建築設計事務所代表

## 1. 建築學에의 첫걸음

建築은 工學的이면서 藝術的이란 點에 攙리어 建築學을 專攻하면서부터 이제까지 약 40年이란 歲月이 지났어도 自信이나 재미스럽다고 느껴본 일은 드물며 건축이란 참으로 어렵고 수고롭기 한량 없는 것이라, 심지어는 두려움마저 앞서는 것을 느끼곤한다. 다만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정리하면 비로소 안도감이 생기며 시공이 완료되어 창작의 價値가 確認될때 비로소 喜悅의 感興을 느껴 自慰하기도 한다. 이렇듯 建築은 깊고 넓은 知識과 이론과 經驗이 쌓인 技術이 必要한 것이다. 다만 열심히 듣고 보고 깨우치는데 많은 時間과 努力을 기울여야 했다. 따라서 建築家는 智慧롭고 슬기로우야 하며 남보다 앞서며 社會의 先驅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모든것을 이해하고 수없이 전개되는 事項을 모조리 記憶할수는 없는 것이니, 그 가장 기본요소가 되며 基幹이 되는 事項을 注視하고 枝葉의이며 未梢的인 것은 細分專門化된 技術者에게 代替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

설계란 누구나 建築學을 專攻하였으면 되리라고 보나 그 設計經驗이나 施工의 過程 結果에 對한 體驗과 批判의 可否가 없이는 無謀한 일이라 보여진다. 따라서 젊은 建築士들이 設計事務所 또는 研究所를 運營하는 것을 볼때마다 그 勇氣와 秀才質에 驚嘆하여 마지 아니하는 바이다. 일반적으로는 着實한 設計經歷을 쌓고, 建實한 施工作業指導의 經驗을 얻지 아니하고 設計業務를 한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볼 일들이다.

設計者는 남의 重大한 建物の 結果에 對하여 얼마만큼 責任을 질것인가, 말하자면 그저 無限責任인듯한 現實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앞날의 젊은 建築學徒들에게는 실제로 배우고 經驗을 쌓고 技術이 熟練된 다음에 設計 또는 施工의 責任者로서 臨해야 할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 2. 建築法의 過去와 未來

近來에 建築法은 過去에 있던 法에서 改善 發展된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立地에서 새로운 條目으로 急變한듯한 느낌이 든다. 急轉하는 社會에 對처하기 위해서는 建築法도 그에 발맞추어 나가야 하겠지만 자주 變更되고 削加 自在하여 軋피를 잡을 수 없고 過去의 知識이 所用없게 됨으로 이를 記憶하고 活用하기에는 번거롭기 限이 없다. 뿐만 아니라 法規의 試驗科題는 冊을 보면서 理解하기도 어려운데 暗記하여 풀이 하기엔 과중한 부담이 아닐수 없다. 따라서 資格試驗法도 再考할때가 되었다고 본다.

法은 萬人の 것이며, 모든 地域에 適用되어야 한다. 새로 짓는 집만을 爲한 法이 아니라 모든 建物이 數年 또는 數十年의 經過措置以後에는 이 法에 따라야 한다 한가지 例로 隣地境界線에서 建物을 50cm, 또는 1.5m 를 떠이는 問題는 어느 때에 가면 完全解決을 볼것인가! 아마도 서울시내의 건물은 앞으로 數十年 동안 現建築法에는 不法 矛盾된 建物로 남아 있을 것이 念慮스럽기만 하다. 理想과 改善의 方向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그에 따를수 없는 問題들의 考慮가 있어야 하겠다. 또한 例로는 建物에 收容될 停車場, 防火施設, 安全避難施設等도 新築되는 建物에의 問題보다 既存 建物의 對策이 時急한 實情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既存 建物에 對한 法이 制定되어야 하겠고 그 管理規制가 필요한 것으로 推測된다. 따라서 建築法은 過去의 建物을 整理하며 現在를 規制하여 將來를 圖謀하려는 合理性을 지니도록 이끌어 가야 할것이다.

## 3. 建築技術資格

建築技術資格은 建築士와 建設技術士와 構造技術士로 大別된듯 하다. 各各 그 經歷年限을 달리하던것을

7年(大學卒業者)으로 統一하고저 하는 時點에 있다.

특히 建築士는 五年經歷으로 되어 問題가 되는듯하다. 애당초 建設技術者資格과 같이 8年으로 하자는 意見과 資格이니까 5年으로 하자는 意見이 對立되어 많은 苦衷을 겪은 것이고 보면 더 할말은 없겠으나 또 한차례 陣痛을 겪어야 할듯하여 염려스럽다. 더욱이 二級資格을 單一級으로 할때는 큰 苦悶이 아닐수 없을 것이다.

資格免許가 全部인듯한 建築技術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建築技術의 最下承認點이 免許証이라 생각하고 더욱 더 練磨하고 研究하여 技術의 發展과 創造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建設部에서 土木, 建築, 機械, 電氣 등으로 区分하고 있으며 이를 다시 여러 專門部門으로 細分하고 있으나 技術資格者가 여러 技術資格을 얻고 그를 同時에 行事할수 있는 것인지 疑門點이 생겨난다. 建築學科·土木學科·農業土木學科에 있어서도 測量學이 教科目的 하나로 되어 있는 있으나 각기 그 目的하는 바가 다르고 內容이 다르나 高度의 技術을 要하는 測量은 또 다른 資格이 있게 마련이다. 要컨데 이들 資格免許를 그 全部라 생각한다면 여러가지 資格을 얻을수 있으나 高度의 建築技術을 터득함에는 그러할 여가가 없는 것이 實情이다. 建築家가 都市計劃 專門家이기도 하고, 造景家가 될수는 있지만 이는 極度의 研究活動을 하였거나 아니면 天才의 氣質일 것이며 그렇지도 않다면 그러한 資格들은 한낱 하급기술에 머물고 있다는 본보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資格이 문제가 아니라 高度의 理論과 明哲한 技術을 지니며 보다 優秀 完壁한 設計와 用意周到한 施工術을 갖추어야 할것이다. 결국 무엇이든 다할수 있는 사람이란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뒷 맛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젊은 建築士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다. 널리 알아두라 그리고 모든일에 專門家가 있다는 것을 깨우쳐라. 그러면 나만이 할수 있는 일과 다른이가 해서 유리한 것을 알것이다 라고, 筆者도 建築技術을 細分 專門化하여 많은 時間과 努力을 消費하지 않고서도 생을 꾸려 나갈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러나 現實은 어떠한가! 의장전공한 건축가가 현장에서 骨體施工을 監理하거나, 시공을 為主로 하다가 設計業務를 하는 것은 펍이나 모순된 일이며, 이제부터는 細分 專門으로 하여도 살만 하니 의장, 구조, 시공의 建築의 基本知識을 터득하고 보다 전문적이며 高度의 技術方向을 設定해야 할것이다.

#### 4. 合同事務所

建築行政의 不條理를 없애는데 多大한 効驗이 있으며 至大한 期待를 예측케 한다. 다만 이를 建築人들 自體의 向上에 따른 것이라 보기전에 公무집행관이 自肅하고 새로운 維新理念을 實踐하는데 卒先한데 起因한 것이라 보며 또한 建築企業主의 올바른 信條가

確固하게 섰기 때문이라 그 공과를 우리보다 그들에게 돌리고 싶은 심정이다. 물론 우리 建築人들의 覺悟와 資質向上이 힘이 되었으리라는 것도 잊지 못할 것이다. 다만 3~5인 合同이 뜻하는 바를 다음 몇 가지로 要約한다면 許多한 問題가 생길 것이 自明하다.

##### ① 事業所經營의 合理化를 爲하여

3인 以上の 事務所가 一體가 되어 合理的 經營方法으로 한다면 設計事務의 零細性을 脫皮하고 各建築士의 技量이 補完되어 보다 經營의 妙를 얻을수 있으나 創作이란 課程에서 個性을 버려야 하며 서로 特技가 同一할때는 意見이 相值될 때 그 조절이 어려울것이다. 3인 以上이라도 계획, 의장, 구조, 설계작도, 지방적산등의 각기 분야별 특기 소유자가 협동하게 되고 서로의 능력평가에 기준이 설수 있다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막연히 마음이 맞는 同志의 集合으로서 는 그 成果에 對하여 難點이 있을 것이다.

##### ② 同一建物内の 合同

이는 서로 頻繁한 接觸으로 相互 補佐協力하는 方法이 되겠지만 相對方을 過信하거나 不信하여 拋棄心理에서 헤어나지 못할것이 우려된다. 다만 建築法上의 問題만을 自他가 慎重히 다루는 長點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良識있는 技士라면 敢히 남의 作品에 自己所信을 밝히기를 두려워 할것이며 曰可曰否할수도 없는 성질의 作品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오직 법상의 상치 결격사항만을 지적할 수 있을 따름이고, 도면 시방서의 보완, 수정, 재설계 등의 처리등에 직접간여할 수 없는 것이 問題點으로 남을 것이다.

##### ③ 連帶責任

合同事務所 또는 連合事務所라 하여 連帶責任의 重輕 또는 그 限界의 所在가 分明치 아니하다. 바꾸어 말하면 責任과 同時에 賦與되는 權限은 무엇이며 언제, 어느때, 어떻게 責任과 權限이 주어지는지 理解가 잘 되지 아니한다. 連帶保證과도 다른 意義를 지닌다고 보면 모를까 그러한 範疇라면 原設計監理者가 責任을 다할수 없을때에 限함이 아니겠는가, 또 그 責무는 건축법상의 法的 違背如否에 따른 것이며 또 그 適否에 對해서도 建築士의 見解로서 可否가 判定될수도 없는 것이라 생각하면 共同責任이란 虛點이 생길것이 우려 된다. 더욱이 감리에 있어서는 건축사 為主가 아니라 建築主, 施工者(都給者 또는 技能工)의 過失 非違를 여러 건축사가 다함께 한다고하여 막을수만 있다고 보아지지 아니하는 점도 있다.

말하자면 한 건축사의 불비 모순점을 여러 건축사가 發見하고 是正하려는 本意는 重要하나 自己가 直接計劃 하고 구상한 것이라도 보조기술자로 하여금 대신 한것의 잘못도 가려내기 힘든데 남의 계획, 작도한 것을 한눈에 그 모순을 指適할수는 到底히 不可能한 것이 아닐까 의구심부터 앞선다.

그러나 계획 설계 작도에 보다 충실하고 더욱 정확해야 할것은 分明하니 建築士 各自은 크게 憤發할 것이며 自己 業務에 最大의 努力을 기울일 것이니 建築技術의 向上은 보다 漸增될 것이 期待되기도 한다.

#### 6. 施工의 安全管理

新聞紙上에 建築現場의 事故가 報道될때 마다 一抹의 悲哀를 느낀다. 建築主의 지나친 經濟追求, 施工者의 過다한 貪慾등을 탓하기 전에 建築設計, 施工의 技術指導가 이렇게도 貧困해서야 하는 寤우침이 든다. 심지어는 무슨 技術이 必要한가, 아무라도 철근 묶고 콘크리트를 다져 넣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起因한다고 본다. 木材나 鐵材를 쓰는 方法은 그래도 오랜 歲月동안 그 힘과 構造法이 一般에게도 몸에 배어 지레 짐작으로도 어느 정도 安全性 있게 다루고 있지만, 철근콘크리트의 一般應用의 歷史는 不過 100년이 못되며 專門家로서도 그 成分, 過程, 結果가 뜻대로 되는 일이 적은데 비하면 一般人은 그저 튼튼한 것으로만 理解되고 있는듯 하여 危險이 隨伴한다고 지적할만 하다.

여기에 고도의 이론과 경험인 그 安全性을 保障할 것인데 單純히 知識으로서 理解할 것이 아니라 活用하여 錯誤없는 技術이 요구될 따름이다. 우리는 나날이 發展創造되는 材料和 더불어 그 利用에 있어서 施工安全性을 檢討하고 充分한 設計와 周到한 工事管理

가 要求되며 또 여기에 모두들 邁進하고 있을 것이다.

이제 建築術은 設計나 施工管理에 있어서나 그 技術全般을 經驗하고 執拗하게 追求하여 不備한 點이 極少로 되어야 하겠다. 따라서 建築士 建築技術者는 自己의 專門과 能力 限界에서 벗어나는 일은 可及的 避하여 보다 큰 來日을 築造하는데 힘을 기울려야 할것이다. 建築設計事務所란 營業이기는 하지만 研究所란 名稱으로도 通用되며 많은 研究들이 이루어 졌으리라 推測되기도 한다. 그 연구 結果를 다른 이에게도 나누어 주는 雅量이 있어 建築誌에 發表되기를 希望한다.

#### 7. 끝으로

建築은 工學, 技術, 藝術 등으로 말하고 있으나 現代社會的 見地에서 共的인 存在로 認識하고 나만의 獨創的인 設計요 得意의 建設妙技보다는 누구에게나 共感이 가고 公評한 價値가 부여되는 建築이 되기를 바랄 따름이다.

建築作品이란 計劃設計者의 것만도 아니고 建築主 自身の 것만도 아니다. 더우기 施工者의 것도 아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 三者가 融和되어 渾然一致하여 이 社會에 巧獻되는 것이어야 할 것이며 技術의 精進과 아울러 人間의 陶冶에도 힘써야 좋은 作品이 이루어 지리라 確信한다.